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9

해방직후의 교과서출판계 주변

◇ 말씀해주신 분

李大儀 (70 · 전 同志社 사장)

白南弘 (70 · 전 同志社 사장)

우리글로 된 마땅한 교과서가 없었던 해방직후, 중 · 고생들의 교재를 일선학교에 공급하면서 탄생한 同志社가 지나온 길은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의 초창기와 거의 그 궤적을 같이 한다. 동지사를 공동으로 창업했던李大儀 · 白南弘 양씨로부터 교과서출판의 개척기에서 검인정교과서의 출현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이야기를 듣는다. 대담은 본지 편집위원李璟薰씨(普成社 대표)가 맡았다.

— 해방직후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의 개척기에 큰 몫을 담당했던 곳으로 동지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당시 공동으로 경영을 맡으셨던 두분을 모시고 창업 이야기부터 들어보기로 하지요.

백남홍 — “우리 두사람은 동경유학시절에 교분이 두터워진 사이입니다. 李사장은 明治 대학에서, 나는 中央대학에서 모두 법학을 공부했지요. 그 당시 개인적으로 일본의 岩波 출판사를 동경해왔던 터라, 해방을 맞아 부족하나마 문화창달에 일익을 담당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인의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전무한 형편이었습니다. 사회 계분야가 정돈되지 않았던 것처럼 美軍政하의 문교부의 교육정책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실제 학교수업을 위해서는 중고생들의 교재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 낸 책은 서울여상의 영어교과서지요. 유경렬이라는 영어교사가 영어교재인 「팔라스 잉글리쉬 리더」(Palace English Leader)를 번안한 원고를 가지고 와서 출판해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을 프린트로 만들어서 45년 10월경 서울여상에 공급했습니다. 아마 한국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영어교과서일 겁니다. 이 교과서는 그후 계속해서 다른 학교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지리, 물리, 서양사도 만들었지요.”

집 한채 만원일 때 자본금 4천원으로 시작

동지사는 45년 10월, 25살의 젊은이였던

李大儀, 白南弘 두사람이 고작 4,000원(당시 집한채 값이 1만원정도였다)의 자본금을 가지고 서대문구 교북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51년 10월 대구에서 장왕사와 백영사로 분리되기까지 중고생 교재를 활발히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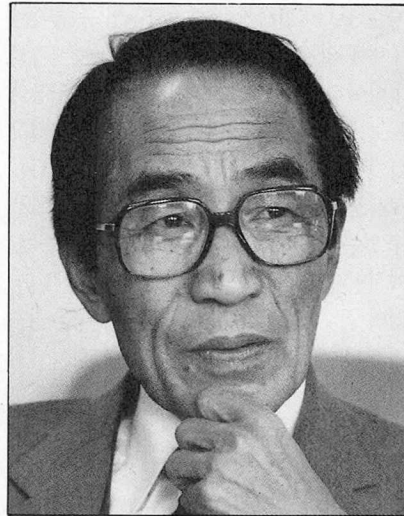
— 당시 교과서의 원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백남홍 — “먼저 우리는 서울대 동양학과를 중심으로 각과 주임교수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취지를 설명했지요. 육지수교수가 중심이 되어 박종홍, 이병도, 김상기, 조의설, 김두헌, 고병국, 이태규, 권영대, 김순식, 강영선, 이민재 이렇게 열한분이 원고집필에 응낙해주셨습니다. 처음의 반응은 ‘어떻게 대학교수가 중학교 교과서를 만드느냐’고 망설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대의 — “집필방식은 교수들의 개인명의로 아니라 ‘교실’별 명의로 했습니다. 동양사 집필에는 동양사교실 명의로 김상기 교수가 대표저자로 김성철, 김일출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생물교과서는 생물학교실 명의로 선우기교수가 대표저자였고 이민재, 강영선교수, 화학교과서는 화학교실(대표 이태규교수), 물리교과서는 물리학교실(대표 권영대교수) 이런 식이었습니다. 공민교과서는 박종홍, 고병국, 김두헌, 육지수 네분이 공동집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6권의 교과서가 47년에 출간됐습니다. 개인명의로는 육지수교수가 집필한 지리를 비롯, 조의설교수의 新讀本西洋史, 이병도교수의 국사 등이 있었지요. 또 가사교본은 ‘중1·2·3, 고1·2·3, 요리실습’ 7가지를 손정규, 조기홍, 주월영, 표경조교수 등이 만들어 47년에는 교과서가 거의 완비되었습니다. 가사교과서의 경우, 56년 이후에야 다른 출판사들이 출간하게 되어 그 이전에는 동지사만이 출간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거의 ‘국정’이나 다름없었지요.”

— 판매면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대의 — “돈이 있어도 책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교과서가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용지 사정이나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광범한 수요자층에 비하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니까 판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지요. 주문을 받아 밤을 새워가며 책을 만들었고, 지방서점에선 료색에 돈을 줘어지고 와서 맡기고 가곤 했습니다. 책이 준비되는 대로 보내달라는 뜻이죠. 4월 신학기가 되면 교사가 교사용책만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5·6월까



백남홍씨

지도 공급이 계속됩니다.

초기엔 직접 원고를 쓰기도 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아이들의 준비서인 「지능고사」를 써서 5, 6만부 찍을 정도였죠. 또 「팬맨쉽」이라고 하는 일제 때 우리들이 사용했던 영습자를 재편집했는데 20만부씩이나 판 것으로 기억됩니다.”

— 다른 출판사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대의 — “46년에는 활자도 어느정도 갖춰지고 다른 출판사들에서도 교과서가 활발하게 출판됐습니다. 그때 ‘말본은 정음사’, ‘음악은 국민음악’, ‘영어는 민중서관’, ‘농업은 수도문화사’, ‘물리는 조선공업문화사(후에 양문사)’, ‘사회는 동지사’ 하는 식의 평판이 서서히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기억됩니다.”

초기에는 등사판으로 교과서제작

— 초기 교과서가 프린트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의 — “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교과서를 만들만큼 충분한 활자가 없었습니다.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한글활자는 매일신보의 신문용 9포인트 활자가 고작이었지요. 그러던 것이 46년경에 와서야 비로소 인쇄소에 활자가 구색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년 반동안 프린트출판을 했던 셈입니다. 동지사에서도 처음으로 만든 영어교과서, 「팬맨쉽」 등이 프린트로 하다가 인쇄본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프린트로 책을 만들 때 글을 쓰는 사람을 필경사라 부르고, 등사판을 미는 사람을 스리꾼이라고 했어요. ‘유령 원자’라는 데다 쓰면 1,000장을 등사할 수 있는데, 스리



이대의씨

꾼이 등사판 톨러를 밀다가 줄기라도 하면 원지가 찢어지기 때문에 줄음을 막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밤을 새워서 안면방해로 파출소에 호출당한 적도 있습니다.”

백남홍 — “인쇄소가 매우 드물었지요. 우리는 현재의 남대문시장 안의 협진인쇄소(구 행정학회)에서 주로 조판, 인쇄했고 읍셋으로는 지금의 서대문경찰서 맞은편에 조선단식이 있었습니다. 타이프로 찍어 읍셋에 거는 건데 단식인쇄라고 불렀습니다.”

— 당시 종이사정은 어땠습니까?

이대의 — “선화지가 많았는데 모래가 섞인 재생종이이기 때문에 잘 찢어지기도 하고 한면에 두세군데 구멍이 뚫리기 십상이죠. 또 갱지는 군산갱지가 있었지만 워낙 수량이 적어서 정부에서 배급을 했지요. 수입하는 것으로 마카오갱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조선일보사내 천우사라는 곳을 이용해서 마카오갱지를 선불로 주문하면 몇달후에 구해할 수 있었습니다.”

— 6·25때까지 교과서 출판사가 27사가 창설되어 420여종의 교과서가 수백만부쯤 팔렸다고 합니다. 6·25동란중 교과서 출판계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백남홍 — “차차 자금이 축적되면서 그 당시 읍셋공장, 활판공장을 갖출만큼 자리가 잡혔었습니다. 읍셋공장은 인사동에 있었고, 활판공장은 지금의 동아일보 사옥 뒤쪽에 2층집을 신축했으며 사무실은 태평로로 옮겨와 있었지요. 우리 둘은 출판사운영에 전력을 다했고 인쇄소는 주로 위업경영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대의 — “가장 번창하던 때에 6·25가 발발해 한강을 건너지 못한 채로 서울에 머무



1957년의 한국검인정 교과서주식회사 창고 상상식 기념사진. 뒷줄 왼쪽부터 두번째가 백남홍씨, 세번째가 이대의씨. 그밖에 정음사 최영해씨, 일조각 한만년씨, 을유문화사 정진숙씨 등의 얼굴도 보인다.

르면서 9·28 수복을 맞았습니다. 한창 북진할 때에 국방부 정훈국에서 순한글로 씌어진 이병도박사의 국사책을 축약하여 조판해 달라고 해서 한달반만에 만들었지요. 100만부를 인쇄하여 선무용으로 이북지역에 뿌릴 예정이었습니다. 3000부를 견본으로 찍었는데, 중공군이 밀어닥쳐 고스란히 정훈장교용 교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1·4후퇴로 다시 기계, 읍셋, 지형을 가지고 대구로 가서 교과서를 찍어냈습니다. 그때 지형을 가지고 피난간 출판사는 대략 15~20개에 불과해 쇠도하는 주문에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대구에 읍셋을 설치하니까 구경꾼들이 '돈만드는 기계'라고 신기해하며 구경하기도 했지요."

읍셋기 보곤 '돈만드는 기계'라고도

— 단행본도 출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남홍 — “진점으로 ‘한국시집’을 냈는데, 당시 좌·우 대립이 심했던 상황이라 좌우익 작가의 작품을 섞어 편집했습니다. 노천명의 시를 싣고 이용악의 시를 다음에 이어 싣는 식으로 배열했습니다. 또 채만식의 ‘태평천하’나 정지용의 ‘산문’ 등도 퍼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적은 편이어서 재판을 찍을 수 없었고 재고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대의 — “주로 문학보다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겸한 교양서적을 냈습니다. 박종홍의 ‘철학개론’이나 ‘일반논리학’, 조희선의 ‘서양사개설’, 이병도의 ‘국사대관’ 등이 있었습니다. 2000부면 많이 팔렸다고 할 수 있는데, ‘국사대관’만은 고시과목에 끼어들어간 이후로 비로소 인기있는 책이

되었지 당시에는 찾는 이가 많지 않았습
 니다.”

— 자랑할 만한 업적을 꼽는다면요.

이대의 — “동화, 동요집, 그림책 등 아동물도 만들어 왔는데, 48년에는 수필가 김소운, 소설가 정인택, 코주부 김용환 세분이 중심이 되어 ‘동지사아동원’을 만들어 ‘어린이나라’를 만들었습니다. 4×6배판 크기로 42면짜리 월간잡지지요. 동지사아동원은 ‘어린이나라’만 낸 것이 아니라 동요대회, 사생대회 등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주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교육과 문화에 적으나마 기여했다고 자위합니다.”

동지사에서 낸 그림동화책으로는 「윌리엄 텔」(李性杓 지음), 「白雪公主」(金義煥 지음)가 있고, 유아를 위한 그림책으로는 「우리집은 초가집」(李鍾錫 지음, 金龍煥 그림), 「동물원」(선우기 감수, 김용환 그림)이 발간되었다. 鄭飛石이 인도동화를 가려 뽑은 「인도동화집」, 李元壽 외 여러 아동작가가 쓴 「공동화」라는 아동소설집도 있다.

— 일하시면서 겪은 일화도 많으실 텐데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대의 — “48년으로 기억하는데, 대통령 비서관을 했던 고대교수 최정우씨가 영어사전을 만들자고 제의해왔습니다. 그래 2년쯤 준비해서 원고가 나오고 교정을 보는 막바지 단계에서 6·25가 터졌어요. 원고를 그대로 금고 속에 넣고 피난갔다 와 보니 불이 나서 재만 고스란히 남았더군요. 이 출판자금으로 식산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환율이 변해서 30만원만 갚으면 됐었죠.”

— 교과서회사였던 대한교과서(주), 문교서적, 대한서적공사,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 한국검인정 교과서(주)는 어떤 기구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대의 — “대한교과서는 당시 중등교과서협회 회원들이 출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출판계에서 실업교과서는 수지가 안맞아 출간하기를 기피하는 형편이라 일반출판사가 아닌 실업계 교과서를 많이 낼 특수업체로서 만들었던 겁니다. 창립사무실은 우리 동지사의 응접실을 사용했는데, 최장수씨가 4~5개월가량 창립실무를 맡아했죠. 그러다가 효계동에 따로 사무실을 차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국정 실업교과서이지만 수지가 안맞으니 결국은 중학교 국어책도 내게 되더군요.”

백남홍 — “문교서적은 국민학교 국정교과서를 말하는데 최재우씨가 사장이었지요. 대한서적공사는 부산시절 묘심사에 있을 때 발행과장이었던 김종규씨가 만들었습니다.”

“교과서도 이제 참고서 수준은 돼야”

이대의 —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가 창립된 건 52년 11월 11일입니다만, 49년 문교부에서 실시한 검인정 교과서제도에 대해 미리 말씀드려야겠군요. 검인정제도가 되기 전에는 민간출판사가 저자에게 의뢰해서 교과서가 출판됨으로써 내용이나 판매가격 등이 출판사 임의대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49년에 이르러 그때까지 출간된 중고등 교과서를 제출받아, 정가를 사정하여 주고는 검인정 교과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과서는 문교부에 검인정출원을 해야 되었습니다. 52년에 이르면, 신학기에 치열한 교과서 판매 경쟁이 일어납니다. 책이 외상으로 나갔고, 동란중이라 대금회수도 어렵고, 인심마저 험악해서 5월~10월간 교과서업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출판업자들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타개책을 문교부 편수국이 있는 부산 묘심사에 모여 강구하는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당시 문교부장관 백낙준, 최현배국장의 협조를 얻어 52년에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가 창립되었던 겁니다.”

민교사 대표였던 민장식씨를 초대 사장으로 15인의 이사과 2인의 감사로 구성된 한국검인정도서공급은 모두 17개사가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시중 5개은행에서 공동융자로 50억원을 교과서 생산자금으로 융자하였다. 참여하였던 이사회는 민중서관, 을유문화사, 민교사, 탐구

당, 수도문화사, 장왕사, 백영사, 양문사, 국민음악연구회, 정음사, 동국문화사, 교학도서, 홍지사, 박문출판사 등이었다.

백남홍 — “은행융자를 얻는데 당시 을유문화사의 정진숙씨가 큰 공헌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회사는 전국 각시·군에 지정공급소를 두고, 교과서를 위탁판매하는 구실을 맡아함으로써 교과서판매의 유통구조를 정립하고자 했지요. 출판업자에게는 닷새마다 대금을 지불해주었고, 채택선언은 공동으로 문서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대의 — “그러나 위탁판매기구를 통해 판매하게 되니까 주문량이 공개되고, 많이 주문받은 출판사와 적게 주문받은 출판사간에 대립이 생깁니다. 많은 주문을 받았던 민중서관, 장왕사, 백영사, 동국문화사, 일심사 5개사가 문교부로부터 판매보류판정을 받기도 했지요.”

백남홍 —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가 발전한 것이 한국검인정 교과서(주)입니다. 전자가 판매만 일원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출판사책이 많이 채택되느냐’라는 문제로 채택경쟁이 심해지자, 생산까지도 한데 아우르자는 발상으로 한국검인정 교과서(주)가 57년 생겼습니다. 56년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다시 한번 판매경쟁이 심했던 때, 66개사가 사활을 걸고 채택운동을 벌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생산 공동판매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요.”

— 초창기 교과서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과서출판의 발전을 위해 관계당국에 바라는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대의 — “현재 교과서가 담배 한갑 가격도 안되는 실정인데,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격을 좀 더 높이더라도 사회의 발전정도에 맞추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삽화가 많이 들어가도 안되고, 색도를 넣어서도 안된다는 등 제약이 심하니까 정제되어 있는 겁니다. 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학습참고서보다 낫지는 못해도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어요? 현 생활수준에 걸맞게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해방직후 황무지나 다름없던 교과서출판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기반을 잡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리·홍현숙기자